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 컨설팅 대표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는 요리가 있다. 여행을 통해 접한 다양한 음식 맛에 눈을 뜨면서 시작된 가족의 집밥 만들기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진화 중이다. 남편은 바베큐, 초등학생 아들은 일식, 나는 정제 모를 퓨전 음식 등 이제는 각자 전문 분야까지 생겼다. 그레 주말 저녁이면 으레 각기 만든 음식 시식과 맛 품평회로 소란스럽다.

물론 우리 가족에도 외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자 삼시 세끼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무리 집밥에 미쳐 있지만 평일의 그 짧은 점심시간까지 매번 밥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 때가 바로 외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잠시 외출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지만 서둘러 집을 나선다. 이유는 버려야 할 플라스틱 용기들로 마음이 편치 않은 배달음식 주문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날도 집에서 편안히 먹을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고 아들과 함께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꽤나 분주했고 가게 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다. 여기까진 익숙한 우리 동네 식당의 점심시간 풍경이었다. 가게 안으로 큼직한 스테인리스 술을 든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들어올 때까지 말이다.

마치 서부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마을 선술집 장면처럼 남성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출입문으로 행했다.

술을 들고 다니는 남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기할 것 없는 일인데 그날따라 점심을 먹으러 온 나를 포함한 가게 안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 남성을 주시했다. 아마도 그를 둘러싼 배경화면이 그와는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리라. 30대 초반의 남성이 술에 담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사불란하게 줄지어 나온 포장 음식 꾸러미들이 차례차례로 도착한 헬멧 차림의 음식 배달원의 손에 들려 나갔다.

그 많은 배달 음식 꾸러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식사 후 집에 와서도 술을 든 남자와 배달 음식의 이미지가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거기에 아들이 물어 온 튠베리의 근황과 장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이르러까지 계속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2019년, 세계는 한 어린 환경운동가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당시 1년간의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4800Km의 항해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했던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과학 전문지 더 뉴 사이언티스트(The New Scientist)는 2019년을 그레타 툰베리와 시위대의 활동으로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마침내 눈을 뜨게 된 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각성과 실천의 노력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 5월 영국 가디언에 게재된 개인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과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미국에 이어 3위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무려 일년, 일인 기준으로 약44 Kg에 이르며 그중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10~15%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실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또한 같은 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4365톤에서 2018년 6375톤으로 5년 사이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한다. 모두 2019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이쯤 되면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과 올해 얼마나 더 무섭게 늘어난 것일까?

요즘 들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다. 이 단어는 듣거나 보기만 해도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멋있고 세련된 삶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핫하다는 상품 판매를 위해 개인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업계가 좋아하는 유행어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본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행동 패턴이자, 가치와 취향을 반영한 자기 삶의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은 강제적 제재에 의해 더 이상 같은 행동 양식으로 해야만 하는 실정어 아니다. 얼마든지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진 루틴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라이프 스타일로 함께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스텐 술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 정유진 코리아 컨설팅 대표가 월요광장 새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정 대표는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 코디네이터를 지냈고 '솔츠 앤 옹겔러리'와 '콘스트라운지'를 운영했으며 현재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삶의 경험을 녹여 낸 글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색다른 삶의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고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은 '좋은 정치를 펼치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도서관인 집현전을 학문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인재를 양성한 결과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가르침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도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난 6월 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에너지밸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광주·전남 지역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인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능 인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력을 양성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국비 26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을 통해 열정적으로 일구어낸 성과이다. 건립 부지는 나주시가 64억 원을 들여 LH 소유 땅을 매입해 무상으로 제공했다. 도와 시군이 하나의 사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현재 전력기술교육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작성 중이며 오는 9월 경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7월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2023년 말에 완공되면 이듬해 2월에 개원해 그해 3월부터는 신입생을 받게 된다.

교육훈련 분야는 크게 전력 IT, 전력 제어, 전력 설비 등 3개 직종이며, 교육과정은 하이테크, 신중년, 여성 재취업 3개로 나뉜다.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연간 300여 명의 맞춤형 전문 인력을 3~10개월 과정의 다양한 전력 특화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신안에 조성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에도 2030년까지 48.5조 원을 투자하여 45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5638명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전력기술교육원이 전남 미래 일자리를 이끌 여결 전문 인력 양성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편, 나주혁신산단협의회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홀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들이 한데 모여 지혜를 모으고 서로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수요와 교육원에서 배출하는 기능 인력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도 잘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건축 후에 있을 교육훈련 장비 배치도 서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32억 원가량의 기숙사 건축비를 국비로 추가 확보하여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고사성어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산업 생태계인 에너지밸리의 특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2022년까지 에너지밸리 등에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501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유치 기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전한 기업이 186개사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 인력을 적시에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주혁신도시에 전력기술교육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나란히 건립되어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기고



신선혜  
호남대시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어디서 배우는가. '학교' 그리고 '교과서'라는 뻔한 답이 예상되지만, 현실은 결코 뻔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설, 드라마, 영화로 역사를 배운다고 답한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을 보면 역사 콘텐츠를 역사 교육의 보조 교재쯤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사실 역사학은 일찍부터 사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모으며, 분류 및 평가하고, 마지막에는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 왔던 것이 역사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학은 현대 디지털 인문학이나 문화 콘텐츠 분야의 핵심 원천으로, TV·영화·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를 활용한 '역사 콘텐츠'가 다수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 콘텐츠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추동하여 역사의 대중화를 견인하였다. 특히 영상 등의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역사 콘텐츠는 텍스트에 갇힌 교과서 속 역사를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최

역사와 '역사 콘텐츠' 교육

적화된 시청각 자료가 되고 있다. 다만 역사 콘텐츠의 장점을 역사의 현장을 재현해준다는 시각에서만 파악한다면 여전히 '주'가 아닌 '부'적인 활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 콘텐츠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부각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황산벌'을 살펴보자. 660년 백제와 나·당연합군 간의 황산벌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황산벌 전투를 기존에 민족통일전쟁 일면도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민중 및 패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라고 말하는 부분은 삼국 간의 전쟁이 민족통일이 아닌, 지배층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것으로, 백제 및 신라인의 동족의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충분히 추론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일반 병사가 "백제가 이기든 신라가 이기든 상관없다. 단지 공을 빨리 세워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다"라고 함으로써 전쟁과 통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잊혀진 민중의 삶 역시 역사로서 부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역사 콘텐츠는 역사의 비어 있는 부분을 촘촘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 콘텐츠를 '주'로 역사를 교육하는 것에는 팩트와 픽션의 구분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역사 콘텐츠 속 '팩션'에서 남발되는 오류나 왜곡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시청률이나 흥행이라

는 한계 속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교과서에 갇힌 역사를 지루해하는 학생들은 팩션이 팩트이기를 바라며 혹은 믿으며 역사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서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나 왜곡이 역설적이게도 역사 콘텐츠를 중등교육, 나아가 대학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배가시킨다. 역사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가공하는 것은 작가나 '역사 전달자'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고증을 통한 역사의 실체를 바탕으로 추상적 상상력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역사 연구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 콘텐츠와 관련하여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중등교육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면 역사에 대한 지속적 흥미는 물론 단계적 이해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콘텐츠 교육은 대학의 안과 밖·중·고·등학생 및 일반 대중을 이어주는 역사 교육의 방법이라 하겠다.

최근 대하사극의 제작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KBS의 '태종 이방원' 제작을 시작으로, 김진명의 소설 '고구려'가 드라마화되고, '조선 왕비 열전'(가제)의 제작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정통 사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부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철인왕후' '조선구마사'와 같이 무분별하게 역사를 왜곡한 역사 콘텐츠에 대한 충격이 제작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수준 높은 역사 콘텐츠는 역사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社說

불법 하도급에 '사고 위험 경고'도 무시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에 해당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철거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건물 철거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한 시민은 지난 4월 7일 광주시 동구에 '학동 4구역 재개발 건축물 해체 관련 안전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철거 현장 바로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는 것이 인명사고 등(을 막을 수 있는지) 불안해서 알린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특히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 "높은 데서 파편 하나 떨어지고, 가는 차량의 유리에 맞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날벼락일 것"이라며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불길한 현장'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주 동구는 4월 12일 "조합 및 해체 시공자에게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첫 30대 야당 대표 선출 정치권 쇄신 계기로

지난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됐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36세 청년이 제1야당의 간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 정치사의 신기원을 연 셈이다.

이준석 돌풍과 함께 30대 원외 인사가 제1야당을 이끌게 된 것은 일단 보수 혁신파 세대 교체 및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43.8%를 득표했다.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데 힘입어 대표에 올랐다. 세대교체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의 압도적 지지와 이준석 새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당심'의 전략적 선택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제 이 대표에겐 국민의힘을 합리적이

이번 사고로 붕괴된 건물은 지난 5월 25일 철거 허가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민원인이 지목한 건물은 같은 현장의 다른 건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철거 방식에 대한 시민의 경고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청 측의 현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참사가 안전 조치를 외면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제 경찰청은 불법 재하도급은 물론 감리 및 철거 과정,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여 책임자들을 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 역동적인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보수야권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도 안겨 됐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의 공존'을 강조하며 대선 승리의지를 다졌다. 그의 대표 당선은 국민의힘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힘에 쇠퇴했던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적잖은 위기가 켜지고 있다. 이준석 중도층의 위기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석 돌풍은 정치권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無等鼓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사다리를 타거나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둘 다 똑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줄은 하늘에 기원을 두고 사다리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점이 첫째다. 줄은 누군가 은혜롭게 내려 줘야 하지만 사다리는 자신이 수고해 가며 세워야 한다는 점이 둘째다.

우리 전통신화와 설화에는 이런저런 줄

이야기가 나온다. 나무

줄과 사다리

뿌리 늘었다. 어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 '공정 사다리'가 바로 그것이다. '포럼'과 '희망 사다리 포럼', 그리고 또 다른 대선주자 정세균 전 총리 지지 모임인 '균형 사다리'가 바로 그러한 예다. 시대정신이 변화하면서 '입신양명'을 위한 혈연·지연·학연의 네트워크로 변질돼 버린 '줄'을 사다리가 대신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사다리가 '높이 매달린 줄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